악도 선도 다 근본에다 놓고 다시 거기에서 생산해서 써라

☞ 21면에서 계속

는 너무 크고 이거는 너무 작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알고 있죠. 지금 수행하는 시점에서도 벌써 짐작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 뭣고, 이놈이 뭣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한테 해당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말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것도, 벌써 백 년이 흘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공이 없이 돌아가서 빛보다 더 빠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잡이도 어리석어서 뛰어넘을 줄 모르는 데다가 그런 길잡이에 딸려 가는 사람들도 모두 장님이고 귀머거리라면 어떻게 앞으로, 정말이지 마음의 인등을 켜고 밤과 낮이 없이 밝게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남들까지 이끌어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 몸뚱이와 자기 가정, 자기 조상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을 공부해 가지고도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을 건질 수가 없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건진다 안 건진다를 떠나서 자기란 말입니다. 우선 요 몸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기와 둘이 아닌 까닭에 자기 생각 하나에 의해 수십억 마리의 자기 중생들이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데도 자기가 아차 잘못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차 잘못 생각하기 이전에 또 바깥으로 미신처럼 찾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는다면 임시적인 위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덕은 이룰 수 없죠.

또 한 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바깥으로 찾아서 그 의식 자체, 이미지에 단편적이고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너무 쌓여서 뭉쳐지면 거기에선 악의 존재밖엔 안 나옵니다. 악의 존재에 따라 수억 마리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정말이지 무서운 도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벌을 받든 안 받든 물질 하나에만 한정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가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을 다 덮을 수도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다 좀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이 자체가 그렇게도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도 묘한 거고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 없는 그 마음이 그렇게 악의 존재를 풀 수도 있고 선의 존재를 풀 수도 있습니다. 무한의 그 진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그저 우리가 수행할 때는 악을 버리고 선으로써, 또 우리가 마음을 깨달을 땐 악과 선을 다 놓고 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 조막대기만한 나라에서 산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한자리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자리가 조그맣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가 작다고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고 몸뚱이가 크다고 인간이라는 법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마음의 도리, 한마음을 진짜로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주인공' 하면 이름은 주인공이지만 뜻으로 벌써 삼천대천세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마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상, 부처, 중생 모두, 풀잎 하나, 애벌레 하나 버리지 않고 한마음으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이 평등 진리의 근본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진짜로 믿을 때에 바로 주인공 속에 일체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 배를 해도 만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 배를 해도 일 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일 배를 해도 백팔 배가 되고 삼 배를 해도 삼만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 일 배도 없으니 어디 가서 찾느냐? 일 배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찾을 때에 바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 배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할 때에 "모두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 배 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엔 없죠, 너무 가까워서. 여러분이 저기 법당에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둘이 되죠. 꼭 법당에 들어가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전에 어느 스님께서 화장실에 갈 때는 가사 장삼은 물론이거니와 두루마기를 벗고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따르면서도 나는 오지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죠. '내가 변소에 가더라도 부처가 거기 있는 거고…, 허허허, 더럽고 깨끗하고가 어딨어? 내가 지금 용변 보러 가면 거기 부처가 용변을 보고 있는 거지.' 속으로 이러면서도 어른의 말씀을 거역 안 하고, 또 형님의 말씀을 거역 안 하고 깍듯이 받들었죠. 그쪽에서 모르든지 알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 공부하는 데는 그 사람이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또 그 사람이 깨쳤고 안 깨쳤고가 나하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 나왔으니까 오직 전체와 함께 무의 법, 유의 법을 같이 동등하게 해 나가도록 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둘 아닌 자비의 행, 참선의 행을 하며 그대로 행선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자기의 마음을 굳혀야 하는 거지, 남이 잘하든 우리가 무지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의 뜻을 깍듯이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이 그토록 진하죠.

왜냐하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저 몸뚱이를 빌려 가지고 나에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누가 나를 때렸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리게 했으니, 그 사람을 괜히 수고하게 만들었으니 더욱 미안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더라도 '아하, 감사하구나.' 또 뭐라고 야단을 치더라도 '아유, 감사하구나. 이것이 바로 저 몸을 빌려서 수고롭게 하니 내 이거 미안해서 견딜 수 있나. 참, 주인공이 나를 다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고가 없으니 모두가 자비요, 지혜요, 바로 사랑인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 법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으로 결집해 놓은 것은 부처님께서 그때 시절의 방편을 써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방편은 지금 시대의 방편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경전은 못 봤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내가 이 방편을 쓰는 거는 현시점에서 돌아가는 대로 맞춰서 쓴 것이니, 이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서 돌아갈 때는 다시금 그 시대에 맞게끔 방편을 바꿔 써도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처님의 그 뜻, 깨달아서 말씀하신 자유인의 그 뜻이 너무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똥을 누었다면 밑을 안 씻을 이치가 없어요. 똥을 누는 대로 그분이 밑을 씻고 일어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믿고.

내가 그전에 할 말이 없어서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 날더러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아,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그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나면 얘기가 나오고 만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참 묘하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 **우리의 마음 하나가 헤아릴 수 없이 이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가 하면**
> **이 세상을 다 좀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마음 이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 **그러면서도 묘하고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해 드리듯이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일임해 놓고 사세요. 잘되는 것도 거기 못되는 것도 거긴데, 잘되는 것도 금방 돌아가고 못되는 것도 금방 돌아가니 어디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공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잘됐으면 잘된 대로 감사하고, 안됐으면 안된 대로 거기서 또 잘돼서 금방 돌아가니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한 것뿐이라. 그런데 뭐가, 뭐가 잘못돼서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엊그저께 스님네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계율, 이런 거 생각해 본 예가 없다." "어째서 그러십니까?" "나 하나 죽으면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 죽는다는 건 아주 극치적인 얘기입니다. 죽었다 할 때는 아무것도 붙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무섭고 두려운 거, 누가 뜯어 먹을까 봐, 무슨 귀신이 나올까 봐, 내가 뭐, 병이 들까 봐, 이런 것은 다 나 하나가 죽으면 붙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로 믿는데 어찌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가루가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것도 걸리지 않을 때, 내 몸이 죽는 것도 걸리지 않을 때 아무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만치 그냥 죽고 사는 것도 다, 거기를 믿어 버리는데 뭐가 거기 붙습니까? 아픈 거, 뭐, 이런 것이 어디에 붙습니까?

그런데 야유하듯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발발발발 떨고 하는 데는 착착 더 붙어요. 그런데 '허, 그런 거 붙거나 말거나다.' 이럴 때는 심심해서도 안 붙어요. 심심한데 그게 붙습니까? 재미있어야 붙지. 하하하. 아등바등하고 그래야 붙는 건데, 그저 그러거나 말거나 이따 죽으나 더 이따 죽으나 그냥, 그저 너나나나 뭐, 다 그냥…. '나'가 죽는데 뭐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붙어 봤자 심심해요. 그리고 여기 붙어 봤자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걸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성가시게 할 수도 없고 나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싱긋이 웃고 말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 물질은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마는 마음은 한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또한 내 몸이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보신이 항상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보신이 따로 있나? 십대 제자도 내가 가지고 있지, 오방신장도 내가 가지고 있지, 호법신장도 내가 가지고 있지, 화신도 가지고 있지, 뭐,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탁 밀치면서 '야, 내 말을 들으려면 들어오고 내 말을 안 들으려면 들어오지 마라!' 이럭하고서는 탁 잡으면, 붙기만 하면 다 그냥 하나로 요리가 돼 버리니 그거 또한 묘한 법이라.

그러니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데 '선과 악을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닷물을 다 삼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무 욕심이 많았죠. 나부터도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욕심을 내려면 그런 욕심을 내세요. 왜? 내가 아무리 선을 추구해서 선을 닦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디쯤 가다가 보면 악도 범해요.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악을 또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 윤회에 말려서 사생 속에서 좌천이 되거나 승진이 되어 돌아가면서 윤회에 끄달리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휘달리겠어요.

그러니 선도 놓고 악도 놓으면, 악도 모으지 않고 선도 모으지 않는 거죠. 한 찰나예요. 선도 한 찰나요 악도 한 찰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한 찰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운전대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악도 한 찰나고 선도 한 찰나인데 운전할 때는 그저 악도 선도 다 놓고선 다시 거기서 생산해서 써라 이거죠.

용광로에 별별 쇠가 다 들어가지만 녹아서 다시 넓적하게 네모반듯한 철판으로 턱하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라서 그냥 생산을 해서 써라 이거예요, 굴려서. 그러니 이것저것에 다 끄달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기초적인 거는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세요.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좀 아시겠죠?

참, 요거 한마디 하고 갈까요, 또? 내가 한 소식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린애를 낳아서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야 어른이 되죠. 그렇듯이 내가 나를 낳고도, 터득을 했다 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건 발견한 게 아닙니다. 키워져야 발견했다는 뜻이 나오죠. 근본 자체, 그 참자기를 발견했을 때는 그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스승은 수억겁을 거쳐 나와서 경험이 많아요.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려니까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7월 10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